

제 3 차 전 국 사 회 과 학 자 대 회 진 행



1 면 에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역사적사건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주체혁명 세대의 사회과학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기념비적 문헌이며 불멸의 대장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서 혁명병도의 나날 수많은 불우의 고전적노작들을 발표하시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견인력과 생활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었으며 주체적 사회과학의 부강한 발전을 위한 귀중하고 풍부한 사상의료적재부들을 마련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시기 사회과학부문에 나서는 기본업무와 주체적 사회과학발전의 총적방향, 과학연구의 중요성으로부터 부분별과업과 그 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사회과학연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사회과학자들을 끊임없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사회과학자들을 사회제부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값높은 사상정신적재부들을 창조하는 나라의 귀중한 인재들로 내세워주시며 모든 영예와 행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정녕 우리 사회과학자들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명도와 따뜻한 보살핌속에 사회과학자들이 지난기간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조국의 부강번영과 나라의 사회과학발전에서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명도영적을 과학리론적으로 옹위하고 끝없이 빛내어온것은 우리 사회과학이 이룩한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였다.

사회과학자들은 즐거운 연구활동을 벌여 수령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한 총서형식의 도서들과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 정책의 특성성과 정당성을 깊이있게 해설본문한 주보적인 도서를 집필출판함으로써 당사상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사회과학부에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수많은 연구성과들을 이룩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독창성과 정당성에 대한 대의선전을 진공적으로 벌임으로써 우리 사회과학의 발전전모를 힘있게 파시하였으며 그 견인력과 영향력을 비상히 높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회과학부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은 전적으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의 사회과학이 나아갈 앞길을 밝히 밝혀주시고 사회과학자들에게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명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사회과학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적 사회과학의 시련을 얻어주시고 그

발전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으며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명도로 김일성-김정일주의 사회과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최대의 영예와 뜨거운 인사를 드렸다.

그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역사적단계에 들어선 오늘 우리 당은 사회과학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충정으로 만들어 주체적 사회과학의 최전성기를 열어가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본뜻이 담보하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실현하는데서 과학자들은 개척자,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니고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사회과학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깊이 간직하고 역사적인 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완수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 사회과학발전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과학부에서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절절히 응수하고 빛내어나감으로써 주체적 사회과학의 혁명적성격과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계승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사회과학부에서 당의 유일적명도체계를 철저히 세워 모든 과학연구활동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것으로 되도록 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사회과학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명도는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 철리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사회과학연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철저히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풀어나가는 건전한 림장과 원칙을 견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과학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권위를 과학리론적으로 결사옹위하며 우리 당정책의 특성성과 진리성을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사회과학자들이 현시대에 걸맞게 풀어나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 찾아내고 과학리론적으로 해명하며 새로운 연구분야들을 대담하게 개척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사회과학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나라의 사회과학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에서는 과학자, 교원들의 인품과 실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며 능력있는 사회과학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어 주체적 사회

과학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기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 사회과학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휘황한 진로따라 자주적 기치, 자강력제일주의기치드높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총진군데에 무한한 활력을 부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사회과학원 소장 풍훈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 전하철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위인들의 세기에 빛날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는 독창적인 사상리론 활동으로 주체적 사회과학의 시련을 열어놓으시고 자랑스러운 발전의 길로 이끄시어 자주시대 사회과학의 빛나는 본보기를 마련하여주시는 탁월한 명도자, 절세의 위인이시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상제관이며 풍훈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인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명호동지는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만 우리 과학자들의 값높고 행복한 삶이 꽃피어났을것을 자신의 심지체함을 통하여 깊이 절감하였다고 하면서 과학은 국경이 없지만 조선의 과학자들에게는 영원히 안겨갈 자애로운 어버이의 크나큰 품이 있다고 격정을 더하였다.

그는 당과 수령의 믿음을 천만금에 못대도

바꿀수 없는 가장 소중한것으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총정다해 높이 받들어모신 같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김 고등교육상 태형철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막대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사회과학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천제적인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주체적 사회과학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고 사회과학자들의 위대한 스승이 되시어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며 그들을 영광과 행복의 최정점에 올려세워주시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리명수 제일조선사회과학자협회 회장과 하리위 금마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은 주체적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시고 구현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있으며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우리 당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적사상과 업적을 과학리론적으로 체계화하고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통하여 체득한 귀중한 경험들에 대하여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부총장 목근소장 선우정환동지, 사회과학원 연구사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 최순옥동지, 조선혁명박물관 제1부판장 교수, 박사 박경식 동지가 토론하였다.

그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순수 끝없이 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할 때만이 위대한 대양의 력사가 이 땅에 영원히 호불수 있으며 사회과학의 혁명적성격을 끝까지 지켜낼수 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회과학원 소장 교수, 박사 손수호동지와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학봉봉동지는 우리 나라의 력사연구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어 민족의 정신문화적재부를 풍부히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주시었다고 말하였다.

평범한 언어학자를 풍훈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로 키워주고 내세워온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해나갈 결의를 다진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김영환동지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친 전세대 과학자들의 위를 이어 주체적 사회과학의 대를 뜻뜻이 이어갈 굳은 맹세를 피력한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교수, 박사 김은택동지의 토론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사회과학원 부원장 풍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시방봉동지와 사회과학원 국장 박사, 부교수 심승건동지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사회과학지도위원회의 사업을 개선하고 과학연구에서 철학성과 창조성, 통수성을 보장하며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법문학대학 학장 교수, 박사 조용봉동지, 교육위원회 국장 문상국 동지, 광복종합대학 리계순제1사범대학 학부장 남영춘동지는 사회과학연구에서 정책적태를 확고히 세우고 교수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밀철히 결합시킴으로써 우리의 사회과학발전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들에서는 당의 의도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사회과학을 따라세우지 못한 결합과 교훈들도 분석총화되었다.

토론자들은 당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미온실현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대회는 《김정일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제3차 전국사회과학자대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사회과학의 혁명적성격과 자랑스러운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실현에서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사랑과 역할을 다해나갈 전체 사회과학자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